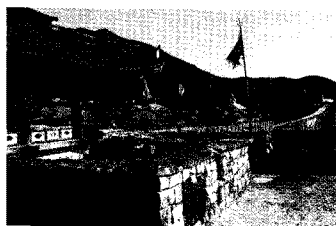




저물어가는 석양의 순천만 갈대

글/사진 • Willy기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_ 낙안읍성

우리나라에는 1900년대 초반해도 170여개가 넘는 성이 있었지만 일제가 이 땅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의도적으로 허물었다. 그곳이 일제에 반대한 의병들의 본거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땅에 남아 있는 원형 그대로의 성은 해미읍성, 고창읍성, 낙안읍성 정도를 꼽을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낙안읍성은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 성으로서 옛 모습을 가장 충실하게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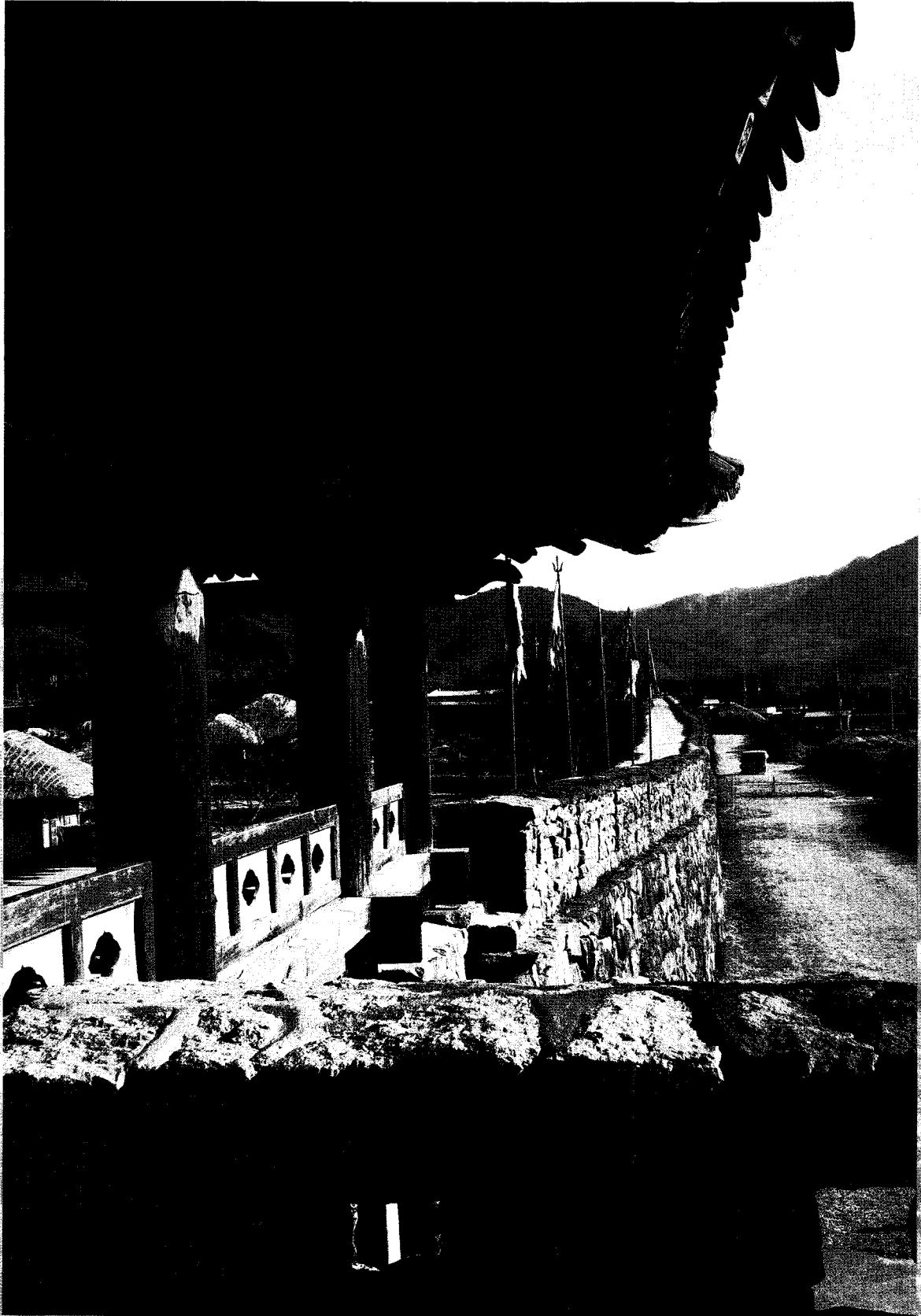
순천시 낙안면에 자리잡은 낙안읍성과 그 민속마을은 넓은 평야지대 축조된 성곽이다. 성내에는 관아와 100여 채의 초가가 돌담과 싸리문에 가려 제대로 보존되고 있다. 옛 고을의 기능과 전통적인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서민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현재 85세대 229명이 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살아있는 전통문화로서, 낙안읍성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만하다.

낙안은 고려 태조 23년(서기940년)에 양악, 낙안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 뒤 고려 현종 9년(1018년)에는 나주부에 소속되었고, 고려 명종 2년(1172년)에 감무를 두었다가 뒤에 다시 지군으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세조 12년(1466년) 지군에서 군수로 고쳐졌으며 중종 10년(1515년) 군내에서 불미한 사건이 발생하여 현령으로 격하되었다가 선조 8년(1575년)에 다시 군으로 승격되었다.

19세기말까지 낙안 군수는 순천진관명마동첩절제사를 겸했다.

순종 1년(음희 2년) 1908년 10월 15일 칙령 제72호로 낙안군이 폐지되면서 순천군 낙안면이 되었고, 1949년 8월 14일 순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승주군 낙안면이 되었다가 1995년 1월 1일





• 낙양읍성의 성곽에 둘러싸인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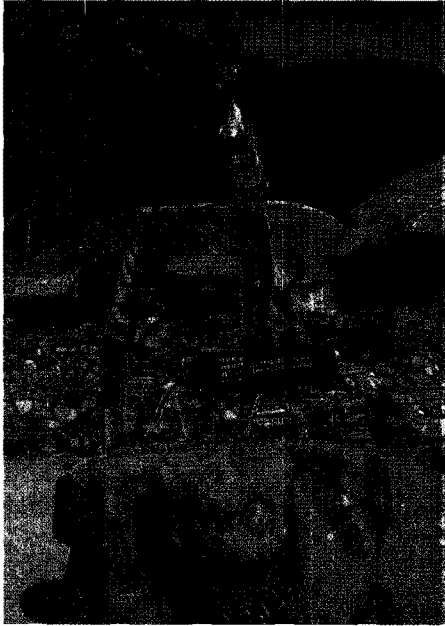
시군 통합에 의하여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현재의 순천시 낙안면이 되었다.

낙양읍성은 대개의 성곽이 산이나 해안에 축조되는데 반해, 들 가운데 축조된 야성으로 외곽과 내곽의 양면이 석축으로 쌓여 있는 협축으로 이루어졌다는 큰 특징이 있다. 이곳 낙안 평야지에 있는 읍성으로의 연대를 살펴보면 조선 태조 6년(1397년) 왜구가 침입하자 이 고장 출신 양해공 김빈길 장군이 의병을 일으켜 토성을 쌓고 왜구를 토벌하였다. 그 후 인조 4년(1626년 5월~1628년 3월) 낙안 군수로 부임한 충민공 임경업 군수가 석성으로 개축하였다고 전해오고 있으나 조선 왕조실록 세종편에 의하면 세종6년(1423년) 전라도 관찰사의 장계 내용에 “낙양읍성이 토성으로 되어 있어 왜적의 침입을 받게 되면 읍민을 구제하고 군을 지키기 어려우니 석성으로 증축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왕이 승낙하여 세종 9년(1426년) 되던 해에 석성으로 증축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이설이 있다.

성곽의 길이는 1,410m, 높이 4~5m, 넓이 2~3m로서 면적 41,018평으로 성곽을 따라 동서남북 4개의 성문이 있었으나 북문은 호환이 잦아 폐쇄하였다고 전하여 오고 있다. 동문은 낙풍루 남문은 쌍청루 또는 진남루라고 하고 서문은 난기추문으로서 성문 정면으로 ㄷ자형 웅성이 성문을 의위 감싸고 있다. 여장엔 활을 쓸 수 있도록 사장 1척 정도의 총안=사구가 있고 이 청안역 시군 총과 원총으로 나누어 있다. 또 여장이 타구로 나뉘어 있고 성곽을 따라가면 형의 성곽이 있는데

• 국내 유일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성곽으로 그 의미가 새롭다.





• 낙양읍성 주민의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아궁이 등 생활소품.

이는 치성이라고 한다 당초 6곳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4곳만 남아 있다. 이 치성은 초소(망루) 역할을 했던 곳으로 좌우로 침입하는 적의 동태를 살피기도하고 성벽을 타고 오르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축조되었다.

그 동안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특히 6.25사변 이후 많은 훼손을 가져왔으나, 1983년 6월 14일 성과 마을(동내리, 남내리, 서내리)이 국내 최초로 함께 사적지(사적 제302호)로 지정 되면서 1984년부터 3~4년에 걸쳐 복원작업이 완료되었다. 여장은 동문(낙풍루), 남문(쌍청루) 주변만 복원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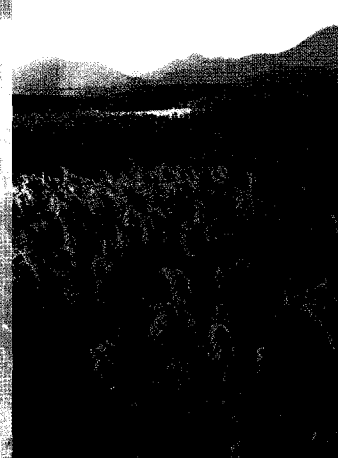
순천만 갈대밭 고향 습지

순천만 갈대밭과 습지를 가려면 몇 해전만 해도 사실 막막했다. 현지인들은 뭇하러 거기까지 가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 막상 그곳에 도착해도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온통 갈대밭과 차가운 바람만 휘몰아치는 그곳이 순천만이였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더랬다. 덕분에 습지와 갈대밭이 거센 개발의 갈바람을 피할 수 있었다. 그저 흔하디 흔한 갯벌이라서 찾는 이도 없었고, 관광거리도 못되는 곳이었다. 간혹 사진작가들이 석양을 담은 모습이 드문드문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곳은 자연의 보고였다. 국제 희귀조류이면서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가 찾아드는 곳. 그리고 검은머리갈매기의 세계최대 월동지, 황새 저어새 등 국제적 희귀조류의 집단서식지이자 어종중인 물새들의 국제적 중간기착지. 그리고 갯벌에 살고 있는 칠게, 망둥이, 쟁둥이, 칠면조, 갯

• 순천만 갈대숲은 봄·여름·가을·겨울 옷을 갈아입는다. 그중 10월일이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 용산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순천만 일대.

개미취, 쑥 모양의 비쭈, 갯질경이, 나문재, 해홍나물, 통통마디 등의 염생식물 등이 자라고 있다.

국내외 환경보존단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골재채취를 하려던 순천시와 마찰이 생겼다. 지역민도 한 수 거들었다. 결국 순천시는 1998년 골재 채취허가를 결국 취소한다. 그리고 2006년 1월 순천만은 국내 연안습지로는 처음으로 습지관련 국제기구인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었다.

세계적인 생태습지로 인정받은 순천만은 말 그대로 관광자원이 되었다. 갈대와 바람 밖에 없었던 그 길은 이제 나무데크로 만든 생태 탐방로를 따라 대대포구 갈대밭을 가로질러 용산 전망대까지 편안하게 닿는 길이 되었다. 생태 전시관과 탐조대도 세워졌다. 용산 전망대에서 보는 해지는 풍경은 너무나 유명한 풍경이 되었다.

대대포구를 벗어나 나온 해변에서 순천만을 만난다. 물이 빠진 바다는 온통 질척한 갯빛이다. S자형 대대포구에서 용산 전망대까지 나무데크가 놓이면서 갈대밭 접근도 쉬워졌다. 갈대밭을 휘감아도는 산책로는 0.8km, 대부분 산책로 끝에서 되돌아가는데 순천만까지 왔다면 용산 전망대는 필수 코스다. 입구에서 전망대까지는 걸어서 20~30분 정도 걸린다. 처음은 가파른 계단길이지만 계단만 끝나면 평탄한 오솔길이 이어진다.

